

사회적 편견을 이겨냈던
화가 『밀레이』



박희숙

- 서양화가
-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미술석사
- 주간 이코노믹 리뷰 『박희숙의 명화읽기』 연재
- 월간 조선 『인물연구』 연재
- 강릉대학교 산업공학과 출강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과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 용서하기 보다는 사회적 부적응자라고 따돌림을 한다. 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보면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다.

이혼녀와의 결혼 때문에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지만 그것을 극복한 화가가 밀레이이다. 밀레이는 친구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밀레이는 평론가였던 친구 러스킨의 초상화를 제작하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러스킨의 아내 에피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다. 그는 러스킨이 육체관계를 두려워해 결혼 후 아내와 한 번도 육체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 하는 에피를 위로하다가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밀레이는 아름다운 그녀를 모델로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밀레이가 에피를 모델로 처음 제작한 작품이 <1746년의 방면 명령>이다.



<1746년의 방면 명령>-1852~1853년, 캔버스에 유채, 102*73, 런던 테이트 브리던 소장

이 작품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성 상납한 여인을 주제로 18세기 중반 반란에 가담한 한 스코틀랜드 병사가 방면 명령을 받고 옥에서 풀려나와 아내에게 인계되는 장면을 묘사했다.

맨발에 아이를 안은 여인이 쪽지를 관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관리리는 명령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이 내민 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입은 기부스한 남자는 아내의 어깨에 기대고 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지만 시선은 남편에게 두지를 않는다. 개는 두 발을 들러 부부를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개는 부부간의 충절을 상징한다.

밀레이의 이 작품은 영국 왕립 미술아카데미 전시회에 출품되었는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몰려든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한다. 여인의 맨발이 성모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고 그녀가 두른 푸른 천의 하늘의 숭고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밀레이를 사랑하고 있는 에피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육체관계가 전혀 없는 결혼생활을 알린다. 친정 부모의 허락을 받은 에피는 결혼반지와 집 열쇠를 러스킨에게 보내면서 결혼 무효소송을 교회에 낸다. 당시 막 터진 크리미아 전쟁 관련 뉴스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세 사람들은 스캔들에 휘말린다.

러스킨은 두 사람의 결혼을 막기 위해 밀레이에게 우정은 변치 말자고 호소하지만 결국 밀레이와 에피는 1855년 결혼한다.

결혼생활 내내 두 사람의 사랑은 확고부동했지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스캔들로 인해 가족 모두 고통을 받았다. 러스킨과 결혼 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에피를 옹호했지만 당시 엄격한 사회 윤리는 이혼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밀레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그린 작품이<나의 두 번째 설교>다. 이 작품은 딸을 모델로 한 <첫 번째 나의 첫 설교> 인기에 다시 제작했다.

소녀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 옆에 놓여 있는 모자와 소녀가 입고 있는 붉은색 케이프, 모피 토시 그리고 구두는 소녀가 외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화면 왼쪽 작은 둥근 나무는 소녀가 어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녀가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암시한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긴 의자는 교회를 암시하면서 소녀가 설교 중에 잠들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어린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이 왕립 아카데미에 전시되었을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축사에서

‘나는 아주 유익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여기 작은 숙녀분이 아주 중요하게 잠들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긴 설교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준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공개 당시부터 인기를 끌었다.

밀레이는 이혼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영국 최고의 초상화가였지만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도 제작하지 못했을 정도로 사회적 제약을 받았으며 아내 에피는 딸의 첫 번째 사교 무대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소중하게 지켜나갔다.

존 에버렛 밀레이<1829~1896>은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에 반대해 라파엘로 전파의 화가로 활동했으며 대중성이 강한 주제를 선호했다.



<나의 두 번째 설교>-1864년, 캔버스에 유채, 91*71, 길드홀 아트 갤러리 소장